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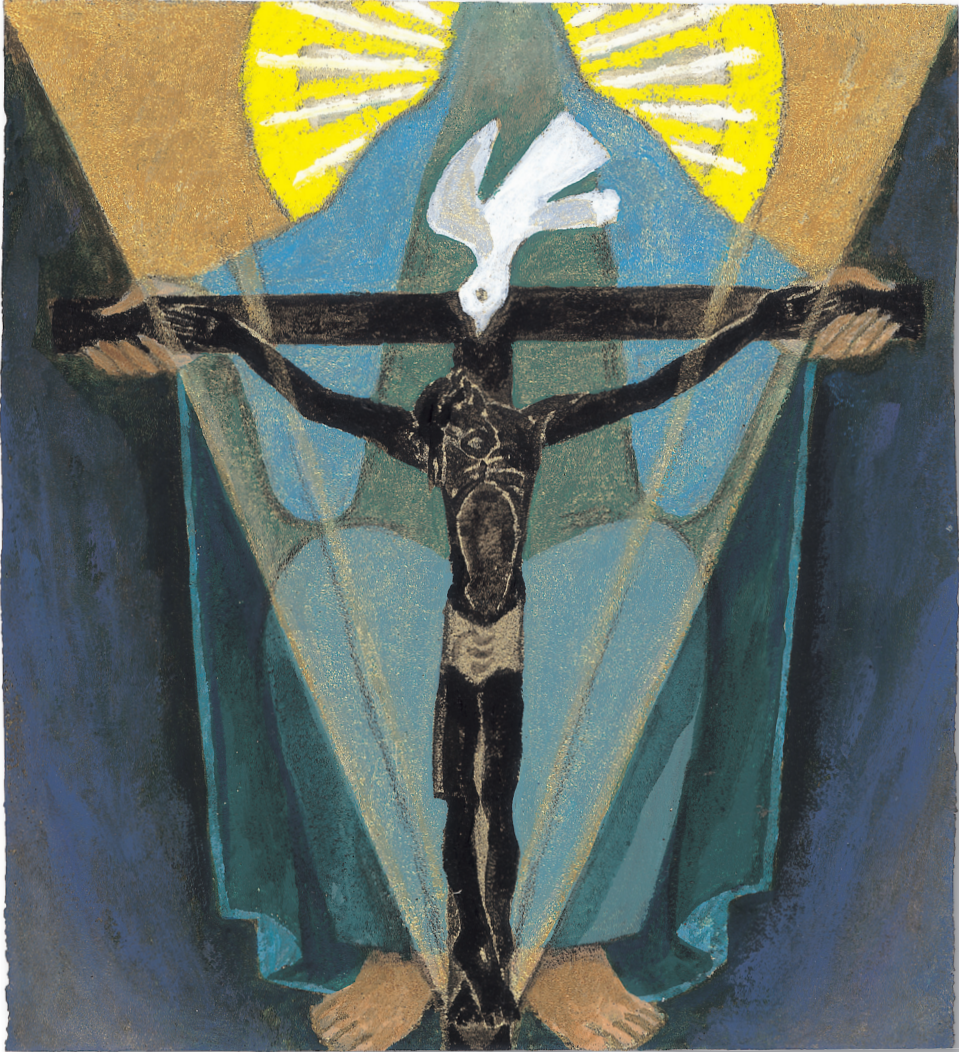
대구 주보

삼위일체 대축일 2017. 6. 11.(가해) 제2055호

2017년 교구장 사목교서 | 그리스도의 젊은 사도, 청소년과 청년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http://www.daegu.jubo.or.kr>

T. (053)250-3048~9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요한 3,16) 기능할 길 없는 하느님의 사랑이 너무도 미약한 인간을 향해 내려옵니다. 더 크게 사랑하시기 위해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 정미연 소화데레사 작

제1독서 탈출 34,4ㄱ-6.8-9 **제2독서** 2코린 13,11-13 **복 음** 요한 3,16-18.

화 답 송 ◎ 세세 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 받으소서. ◎ 알렐루야.

영 성 체 송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신다.

이해 안 되는 하느님



이강재 요셉 신부 | 용강본당 주임

“한 아이가 바닷가에서 물웅덩이에 바닷물 퍼 담는다는 예화는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수년 전 어느 본당 자매님이 삼위일체 주일 강론 때마다 듣는 이야기에 질려서 이제는 그만 듣고 싶다고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비단 이 자매님뿐만 아니라 몇 년간 신자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삼위일체 교리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교리가 아니고 ‘믿어야 할 교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할 수 없어 바닷가 산책 중에 만난 아이의 대답을 듣고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접고 믿었다는 예화는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러니 더 이상이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하구요.

성부, 성자, 성령의 각 위격이 세 분 하느님이 아닌 한 분 하느님이시라는 교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어디 이뿐이었습니까? 저는 40여년을 살아왔지만 이해되지 않는 하느님을 너무나 많이 느끼고 경험해왔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하느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라는 의문을 지금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한 사건사고에 휘말려 감옥에 갇히거나 소중한 목숨을 잃어야 했던 일, 남에게 도움을 주었을 망정 해코지 한 일 없는 사람이 난치병이나 불치병에 걸려 고생하고, 남을 극악무도하게 괴롭히는 사람들은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하게 누릴 거 다 누리며 사는 모습들. 그런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일상사들... 이해가 되시는지요?

삼위일체의 하느님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삶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해되지 않는 하느님을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삼위일체 하느님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느님이 이해되지 않는 것’과 ‘내 삶의 어려움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무슨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연관성이라기보다도 도저히 ‘이해 불가’라는 공통점만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창조질서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삼위일체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신앙과 삶의 괴리감과 이해 불가능한 신비. 이 또한 삼위일체 하느님의 한 부분입니다.

애초부터 우리가 하느님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느님을 이해한다면 더 이상 그는 하느님이 아니다.’라는 어느 성인의 말씀도 생각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의 삶과 가르침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당연한 일 아닌가요? 이제 커서 보니 부모님과 선생님의 가르침이 전부는 아니어도 많은 부분 이해가 갑니다. 이것도 당연한 일 아닌가요? 하느님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느님이 계시지 않다거나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어떤 아이가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하겠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며 가출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해되지 않는 삼위일체 하느님. 언젠가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필문**

제4장 사회교리의 원리

박용욱 미카엘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가톨릭 사회교리서 『두캣(Docat)』의 네 번째 장은 사회교리의 원리들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핵심 계명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요. 이 계명을 어떻게 세상 속에서 실현할지 기본 노선을 천명한 것이 사회교리의 원리들입니다.

1. 존엄성의 원리

사람이 함께 사는 곳에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여러모로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는 없지요. 남다른 재능과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 그만큼 일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보수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뜻하지 않게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아무리 노력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꿈을 펼치기엔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경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의 승자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패자도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선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인간존엄성의 원리입니다. 남다른 재능이나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벌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2. 공동선의 원리

세상 모든 사람과 단체가 각자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세상은 갈등과 반목으로 동강이 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교리는 개인과 단체의 이기심을 뛰어넘는 ‘공동선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선이란, “집단이든 구성원 개인이든 자기완성을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화”(사목현장, 26항)를 뜻합니다.

이것은 국가라면 국가, 단체라면 단체라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라는 뜻

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근본적인 권리인 인권을 가로막아서 부강한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은 공동선이 아니라 전체주의를 뜻합니다. 오히려 공동선은 개인이건 국가건 간에,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모두에게 선이 되도록 정의롭게 행동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캣』 88항은 ‘공동선을 원한다는 것은, 자신의 욕구를 넘어서 생각하는 능력이 있음을 뜻합니다.’라고 밝힙니다.

3. 보조성의 원리

공동선을 추구하는 과정이 전체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은 보조성의 원리입니다. 인간 역사 안에는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한다면서 공권력과 같은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국가와 같은 상위집단이 개인이나 하위집단이 할 수 있는 일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는 전체주의의 망령이 활개 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4. 연대성의 원리

간혹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는 바를 왜 나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과 나눠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누구도 혼자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타인의 도움, 사회의 도움 속에 빛지고 있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 하는 형제자매입니다. 연대성의 원리는 우리 모두가 서로 돕고 연대함으로써 인간다워질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머물러 있는 곳에 함께 계신 하느님

서광호 베네딕도 수사 |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수도원에 입회한 첫날 밤, 속세결별의 아쉬움과 ‘좋은 몫’(루카 10,42) 선택의 뿌듯함이 교차하여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으로 오랫동안 뒤척였습니다. 아무래도 만감이 교차했겠죠. 그렇게 버티던 시간이 흘러 어느새 긴장감은 느슨해지고 잡다한 생각들이 저를 엄습합니다. 시간마다 ‘하느님의 일’을 바치라고 알려주는 수도원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누군가의 말처럼 ‘인생 종친 것’ 같았습니다. 물론 입회 때,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고 수도자로 죽을 각오 또한 야무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삶이고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절실한 순간이 찾아오면 밖에서 해보지 못한 술한 것들이 저의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마치 ‘이집트를 막 떠난 불평의 이스라엘’처럼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 힘든 시기였다고 고백합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곳으로의 여행, 조금이라도 해봤으면 싶었던 여러 경험들, 끝내 해보지 못한 봉사활동, 무엇보다 뜨거운(?) 연애에 대한 아쉬움 등이 그랬습니다. 구약성경에 비유하자면, 하느님을 위해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포기하고자 아들의 몸을 단단히 밧줄로 묶었던 아브라함(창세 22장)과 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저의 소중한 봉헌물을 바치겠다고 다짐하고선 그 밧줄을 일부러 느슨하게 묶어놓곤 ‘나만을 위한 제단’ 앞에 서서 그것을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한 채 애매하게 시간만 보내는 상황 같았기 때문입니다.

온갖 잡념이 정신을 사로잡고 생각을 흐트리면, 묵상과 기도라는 대피소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성소의 갈등으로 번잡한 고

민을 하던 때에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고요와 침묵 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죠. 당장 짐 싸서 나가겠다는 생각일랑 멀쩡이 밀어두고 밀어두길 술하게 반복하며, 감실 앞에 앉아 ‘멍 때리고’ 있다 보면 자연스레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고, 그러한 탄원의 기도는 잡생각을 포기하라는 부르심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미련에 매여 있는 ‘미련한 짓’을 그만두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는지, ‘붙잡혀’ 있는지 똑바로 보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베네딕도회의 서원 중 ‘정주’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머물다’라는 이 단어는 육체적인 의미를 넘어 영적, 심적으로 그분이 계신 곳에 늘 자리 잡고 있어야 함을 베네딕도 성인께서는 이미 오래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부르심은 결코 한 번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삶에서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정말 ‘경청의 자세’로 오직 머물고, 기도하고, 일하는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왜 여기 들어와 사는지, 오직 그것만을 진지하게 물어오는 곳이 수도원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고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면 기쁨이 스며들고, 단 하나의 몫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 가치를 둘 수밖에 없는 곳을 배우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자 곧 하느님께서 저를 그저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머물러야 할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확신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나니 수도원 종소리는 인생 종치는 의미가 아니라 매 시간 새로운 ‘시작’으로 다가왔습니다. **▶▶▶**

하느님 안에서 부부로 사랑과 일치를 이루는 혼인성사

하느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짝이 되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녀를 낳아 번성하라고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창세 1,27-28 참조).

이처럼 세례를 받은 남녀 신자가 서로 사랑하면서 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성사가 '혼인성사'입니다. 칠성사 가운데 다른 성사들은 그것을 받는 사람 개인적인 것이라면, 혼인성사는 결혼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루고 부부로 맺어지는 남녀가 공동으로 받는 성사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성사는 남녀가 결합하여 이루는 가정 공동체를 위한 은사이며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하느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혼인의 목적은 서로 갈릴 수 없는 사랑의 결실로서, 자녀를 출산하여 주님의 인류 창조 사업에 협력하고 부부의 합심한 사랑으로 자녀를 잘 교육하며 양육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가 서로 도와 창조주의 목적에 맞도록 자신들과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완성으로 이끌어 가는 데 있습니다(에페 5,22-23 참조).

가톨릭교회에서의 혼인의 특성은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입니다. 단일성은 하느님 창조의 섭리에 따라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결혼인 일부일처제를 원칙으로 함을 의미합니다. 일부다처나 중혼, 축첩 등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혼인의 신성함을 모독하는 죄악으로 여깁니다. 또한 혼인의 불가해소성은 부부가 서로

로 존경하며 신의를 지킬 것을 요구하기에, 유효하고 합법적으로 맺어진 혼인을 깨뜨리는 이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태 19,6)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신자들끼리의 혼인은 주례 사제와 두 증인 앞에서 전례를 통해 일생 부부로 살아갈 것을 서약하는 혼인성사를 통해서만이 교회가 인정하는 유효하고 합법적인 혼인이 됩니다. 만약 신자가 예비신자 또는 비신자와 혼인을 할 경우에는 관면혼이 가능한데, 관면혼인은 신자 아닌 배우자가 신자 배우자의 신앙생활과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보장하겠다는 서약을 하면 가능합니다.

다. 교회는 혼인 당사자들과 가정을 보호하고자 교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회법적 형식을 따르지 않고 사회 예식으로만 혼인하거나 교회의 허락 없이 비신자, 또는 타종교인과 혼인을 한다면 교회법상 혼인 장애(조당)에 놓이게 됩니다. 혼인 장애 상태에서는 성사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관면혼과 같이 교회의 관면을 요청하여 그 장애를 제거하고 교회법적 형식을 통하여 새롭게 혼인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면을 받더라도 한 쪽이 신자가 아니면 혼인성사는 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미리 배우자 될 사람을 설득하여 혼인 전에 세례를 받도록 하거나 혼인 후에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교구장 동정



6.4(일) _ 주교좌 계산성당 견진성사(14시)

6.5(월)~9(금) _ 사제 피정(한티피정의집)

6.6(화) _ 레지오마리아에 도입 60주년 미사(15시 30분, 주교좌 범어대성당)

총대리 동정



6.5(월)~9(금) _ 사제 피정(한티피정의집)

6.10(토) _ 주교좌 범어대성당 견진성사(19시 30분)

교구 및 기관 행사

6.14(수) _ 고령성가의집 축복식(14시 30분) /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의(19시)

6.15(목) _ 소공동체위원회 월례회(11시, 교구청 별관 3회합실) /

37기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아간) 1주차(19시, 교구청 별관 대회합실)

6.16(금) _ 제2차 약혼자 주말(18일까지, 베네딕도수녀원 영성관)

6.17(토) _ 2017년 상반기 말씀잔치(14시,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루가관 7층 대강당) /

파스카 189차 봄 창세기 연수(18일까지, 꾸르실료교육관)

6.18(일) _ 가나 강좌(9시 30분, 가톨릭대학병원 마리아관 1층)



아름다운 유산 장기기증 “제가 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결정은 어떤이의 마지막 희망이며,
누군가의 생명을 이어주는 전부입니다.

문의: 천주교대구대교구 생명사랑나눔 운동본부, (070)4800-3005



답-에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삼위일체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이웃에게 선행 하나를 실천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박성규 엘리시오



미사 안내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6월 12일(월) 10:30 범어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6월 13일(화) 11:30 계산성당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6월 12일(월) 11:00 황성성당	대구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6월 14일(수) 19:00 별관 4회합실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6월 12일(월) 11:00 신평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6월 15일(목) 10:00 평화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6월 12일(월) 11:00 죽도성당	경주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6월 15일(목) 19:00 근화여교 경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6월 12일(월) 11:00 계산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6월 17일(토) 10:00 월성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6월 12일(월) 11:00 월성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6월 17일(토) 11:00 성모당
포항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6월 12일(월) 19:00 4대리구청	-	-

성소 | 피정

천주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6.17(토) 14:00

장소: 서울 개화동 분원

문의: (010)3800-1579

빈마음 성소 모임

일시: 6.18(일) 14:00, 수원 본원

주최: 성빈센트드블자비의수녀회

문의: (010)8833-8107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문의: 개인 연락가능

(010)5033-9302

<http://www.columban.to>

산내 치유 피정(선착순 10명)

기간: 6.20(화) 10:30~21(수) 18:00

장소: 효령하늘집

문의: 이곡성당, (054)382-0091

6월 한티 피정

쉬는하루(산책기도): 6.19(월) 10:00~16:00

지도: 김형수 신부

문의: 한티피정의집, (054)975-5151

베네딕도 살이 피정

기간: 7.5(수) 17:00~9(일)

장소: 툇핑포교베네딕도 대구수녀원

대상: 수도생활을 체험하고자 하는 청년

문의: (010)8519-3431

신약성경 통독 피정

기간: 7.13(목) 9:30~16(일) 13:00

장소: 베네딕도영성관 / 피정비: 16만원

문의: 313-3425 / (010)7103-3425

fiat 젊은이 피정

기간: 6.24(토)~25(일) / 참가비: 2만원

장소: 과천 말씀의성모명보수녀회

대상: 만 20세~35세 미혼 남·여

문의: (010)8920-9423

37차 부산 분도명상의집 성독 입문 피정

기간: 8.16(수)~20(일)

지도: 허성준 신부, 이경희 수녀

인원: 40명 / 피정비: 34만원(인 1실)

신청: 봉사자, (010)3827-0092

사무실, (010)6650-4574

부산교구 연산성당 특별 치유 대피정

세계적인 치유 사목자 마태오 신부 초청

기간: 6.13(화)~14(수) 9:00~18:00

준비물: 미사도구, 도시락, 개인용 돗자리

문의: (051)865-1806 / (051)867-1464

교육 | 모집 | 기타

제50차 마신부님 아일랜드·영국 영어연수

초·중·고: 7.24~8.14 영국·아일랜드

대·일반: 6.25~8.6 아일랜드

세계 학생들과 연수·다양한 경험

후원: 카푸친작은형제회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0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출발: 매월 1회, 4박 5일 / 63만원

지역: 가고시마, 나가사키

주관: 가고시마교구

지도: 송진욱 신부

문의: (010)3005-9028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9월 정규 입학 모집

기간: 단기, 장기

대상: 초5~중3

주최: 그리스도의예지오수도회

문의: (02)2258-8983

<http://www.oakinternational.co.kr>

박익현 구심내과 의원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원장 박 의 현(안드레아)
☎(053)252-1785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반월당 대구학원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

나비피부과
(여드름/기미/모공)

피부과 전문의 / 원장 김창욱(라파엘)

053.253.7582
동성로 롯데영플라자 맞은편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 656-9911
010-2008-2329

당뇨 고혈압!
합병증 예방이 우선입니다.

수업 내과

[인공신장실/건강검진실]

경북대병원 외래교수 김 건 현(라파엘)
상인역 ☎(053)642-7575

기백한의원

손발 저림, 허리, 어깨
무릎, 두통, 어지럼증

교대역 3번 출구 옆 원장 박기범(유스티노)
☎ 053)471-3733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홈케어 무료서비스

무료전화 080-053-1000
이옥수(아네스) 010-5048-7739

유러피안 스타일 캐주얼 레스토랑

moumou 무무스

스테이크(한우)·파스타·화덕피자·샐러드바

대구시 수성구 용학로 13(수성못)
예약문의 762 7555 | 김경희(스페파니아)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6월 14일(수)은
(故) 박창수(요한) 몬시뇰
선종 8주기입니다.

행사 | 모임

6월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6.18(일) 14:00
1~3대리구: 남산동 대신학원
4대리구: 성동성당, 죽도성당
5대리구: 5대리구청, 평화성당

노년을 위한 토빛 피정

기간: 7.5(수)~6(목), 한티피정의집
대상: 65세 이상 / 선착순 60명
마감: 6.25(일) / 피정비: 6만원
문의: 교구 노인사목담당, 250-3077

동인성당 바자회

일시: 6.17(토) 10:00~18:00
6.18(일) 10:30~17:30
내용: 물품 판매, 먹거리 장터,
행운권 추첨 / 문의: 422-6290

교육 | 모집

6월 가나 강좌

일시: 6.18(일) 10:00~17:30(시간엄수)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마리아관
참가비: 1인 2만원(당일 신청) 무료주차
문의: 교구 가정사목담당, 250-3114

37기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 개설(아간)

기간: 6.15~7.13(매주 목, 19:00~22:3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 10만원
대상: 가족을 사랑하는 모든 어머니
문의: 교구 가정사목담당, 250-3114
(010)6499-3114

교구 청년국 19기 청년리더십

기간: 7.7(금) 20:00~9(일) 18:00
장소: 앞산청소년수련원
대상: 만 19세 이상 청년(예비신자 가능)
신청: <http://www.dcy.co.kr>
문의: 교구 청년국, (010)9580-0083

시편 성가, 발성법 연수

일시: 6.11(일) 15:00
내용: 시편 성가, 발성법 연수
지도: 김정선 수녀, 박재연 / 회비: 1만원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6월 지성인을 위한 토요 신앙 특강

일시: 6.17(토) 10:00~12:00, 대가대
신학대학(남산동) / 주제: '고요한 아침
의 나라에서'를 통해 보는 100년 전 한국
강사: 박현동(블라시오) 아빠스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난타교전무용장구오카리나, 가곡성가, 성
가반주_오르간·클래식기타·하모니카성가,
발성법, 왕초보관광영어, 사범자격과정꽃
꽃이, 제대꽃꽃이, 미술심리상담사2급1급,

수지침, 원어민영어 / 신청: 254-6115

관덕정 국내 성지순례

일자: 7.16(일), 수원교구 어농성지
회비: 3만원(중식포함)
신청: 6.14(수)부터 선착순
문의: 관덕정, 254-0151

가톨릭신문사 크루즈 성지순례

기간: 9.2(토)~15(금) 13박 14일
장소: 이태리, 그리스, 발칸반도
(메주고리에) 등
경비: 내측 558만원, 발코니 588만원
문의: (02)780-0832 / www.cttour.org

한중친선교류 평신도 회원 모집

동아리(중국어 / 성경, 노래, 회화 등)
월례회(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친교)
중국 / 성지순례, 문화여행, 교류활동
대상: 중국에 관심있는 모든 신자
문의: 한중친선협회, (010)2662-1560

채용 | 안내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박세호(라파엘)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2017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추가일자: 7월 30일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8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그랜드 통증의학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프롤로 재생 주사,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전문 - 원장 정 순 우 (요셉)
범여네거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여롯데캐슬 상가 2층
☎ 755-5572 (지하철 범여역 6번 출구)

SINCE 1985 안지랑 국민은행 3층
성가정결혼
권 종 문(파비올라)
053)474-0025
010-3818-0818

H.S. 의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윤(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이 연 재(메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Rex Diamond
더렉스 대구주얼리
예물,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순금바
(목주반지 · 김사선물 · 프로포즈 반지)
대표 임 미 순(마리아)
♥ 교동쪽 동아백화점과 시청 사이 ♥
(동아주차 무료)
☎ 053)428-7989 | 010-4439-9991
교우님들께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 이제는 안전하게 파세요!
시니어문서파쇄사업
시니어문서파쇄사업은 지역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대구서구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대구서구시니어클럽
문의 ☎ 053)563-1025 노현영 사회복지사

WIDEX **와이덱스 보청기** **달서점**
前) 대구복음보청기 14년 지점장
덴마크 및 세계 유명 브랜드 취급
즉석 A/S, 131만원 보조금 전문상담
류(다나엘)/청농사 053)554-0044
2호선 감삼역(서남시장) 2번 출구 앞